

## 제2강 예수님의 세례와 유혹

### 1. 예수님의 세례

루카 3,21~22, ; 마태 3,13~17 ; 마르 1,9~11

루카는 예수님의 기도와 천상 계시에 역점을 두고서 예수님의 세례와 영적 체험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활동임을 강조했다.

#### 1.1. 루카 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세례

##### 1.1.1. 루카 3,21(도입)

‘온 백성’이라는 말은 그가 ‘독사의 자식들’로 비난한 군중(루카 3,7)을 요약해서 일컫는 말이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누구의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마르 1,9).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제자로서 비천한 위치에 서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 세례자의 세례활동을 인정하셨고(루카 20,1~8),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아들로 계시 되셨으며, 요한이 예고한 ‘더 강하신 분’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로 계시 되셨다.(루카 3,22)

요한 세례자의 세례는 하늘을 열거나 성령이 임하지 못한 반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세계를 열었다.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창세 7,11 ; 이사 24,18 ; 63,19 ; 말라 3,10)

##### 1.1.2. 루카 3,22(성령강림과 하늘의 증언)

하느님은 당신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여 그분 위에 현존하신다. 성령강림은 하느님이 마지막 날, 즉 세상 종말에 약속하신 선물이 베풀어졌음을 가리키고(사도 2,17) 결정적 구원의 실현을 뜻한다. 성령의 현존이 가시적 체험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요한 세례자의 예고대로 가혹한 불 심판을 집행하시기보다(루카 3,16), 온화한 비둘기처럼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특성을 지녔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현존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과 종의 사명을 준비하고(루카 3,23.38. 4,1.14)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을 메시아 임금으로 계시하시어 세상 종말에 실현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하느님이 예수님을 당신 외아들로 계시하시고 아들로서의 사명을 이행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세례 때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성령은 하느님이 그분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느님은 당신의 권능인 성령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와 당신의 종으로 확인하시고 사명수행에 필요한 권능을 부여하셨다.

세례 때 천상의 소리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체험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마르코 복음(1,11)에서는 루카복음(3,22)처럼 하느님이 예수님을 직접 ‘너’라고, 마태오 복음(3,17)에서는 ‘이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라는 말은 예수께만 들린 목소리이고, 루카 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신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마태오 복음의 진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영적 체험을 보고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으라는 뜻으로 서술되었다. 요한복음(1,32~33)에서는 천상의 소리는 제시되지 않고,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의 세례 때 영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체험이 개인적인 것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마태오 복음과 요한 복음에서는 이 체험이 그분께만 한정된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 1.2. 마태오 복음에서 살펴본 예수의 세례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의 세례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요한과 예수의 대화(13~15절) 및 하늘의 개입(16~17절)

### 1.2.1. 요한과 예수의 대화(13~15절)

요한은 예수의 우위를 고백하고 장차 예수가 베포 세례에 대하여 말한다(11~12절). 그는 자신이 예수에게 종속되었음을 되풀이한다.(14절) 그렇지만 예수는 역할을 바꾸어 수행함으로써 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15절)라고 주장한다.

### 1.2.2. 하늘의 개입(16~17절)

이 구절은 예수의 처신에 대한 하느님의 장엄한 긍정으로 나타난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늘이 먼저 열려야 했다. 이러한 하늘의 열림을 보는 이는 바로 예수이며, 하늘의 목소리는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마르 1,10~11). 마태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보다 공적(公的)이다. 하늘이 열리고 신의 음성이 예수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3,17). 그렇지

만 이 이야기에는 균중도 없고 균중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상 복음서의 저자가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첫 번째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대상은 바로 독자들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와 하느님의 심오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 2. 예수님의 유혹

루카 4,1~13 ; 마태 4,1~11 ; 마르 1,12~13에 걸쳐서 나타난다.

###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에서 제시된 유혹의 내용은 마태오 복음(4,2ㄴ-10)에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어록><sup>1)</sup>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 2.2. 도입(4,1~2)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해방을 찾은 곳,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시련과 정화의 장소,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호세 2,14~15; 루카 1,80; 3,2; 5,16; 7,24)야수들과 악마들의 서식지이다(레위 16,10; 이사 13,21; 34,14; 토비 8,3; 루카 8,29; 11,24).

‘40’이라는 숫자 -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한 것(민수 14,33; 32,13), 모세가 십계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 40일을 보낸 것(탈출 24,18)과 엘리야가 40일 동안 단식한 것(1열왕 19,8)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40일 동안의 유혹이 연

1) 예수어록은 Q문헌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Q는 독일어로 ‘원천Source’을 뜻하는 ‘Quelle’의 이니셜이다. 이 어록은 공관복음서의 가설에 근거한 공통적인 집필 사료로, 작가 미상의 가설에 근거한 공통적인 집필 사료로, 작가 미상의 그리스도인이 서기 50~60년경에 마태오 공동체가 속한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록하여 편찬한 문헌이다(통설). 현재 전해오지 않기에 어떠한 문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학설이 분분한데, 아람어로 된 마태오 복음의 그리스어 번역본이 아닌지 등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Q문헌은 역사비평적 성서 연구방법의 하나인 출전비평에서 복음서 사료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 복음서 비교연구를 통해 공관복음서의 출전이 된 문헌을 예수어록과 마르코 복음서 두 가지로 보는 이출전설(二出典說)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록은 이러한 분석결과로 인해 도출되는 가설적인 문헌이다.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낱말이나 문체, 내용이 같은 대목이 70여 곳이 넘는데, 교통 통신 인쇄술 등의 여건은 미흡한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단지 구전만으로, 그것도 직접 말씀을 듣거나 전승받은 사람과 집필하는 사람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단어까지 합치하는 사람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단어까지 합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집필 사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학계 다수설).

어록의 존재를 전제하여 다시 복음서들을 분석해 보면, 서기 70년경에 로마에서(통설) 어록과 자체 전승자료를 사료로 하여 집필된 마르코 복음서는 원문이 어록에서 많이 변질된 반면, 서기 80~90년경에 시리아 지방에서 어록과 마르코 복음서 및 자체 전승 자료에 기초하여 쓰여진 루카 복음서는 어록을 크게 변질 없이 많이 참작하여 인용했으며, 이중 마태오 복음서는 어록의 순서를 누시한 채 여기저기 흠여 놓은 반면 루카 복음서는 대체로 그 순서를 존중하며 3장, 4장, 6장, 7장, 9~17장에 집중적으로 옮겨놓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된다. 이 성경구절들에는 40이란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40은 정화 기간, 시련이나 고행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악마’의 그리스 말(히브리 말 ‘사탄’: 원수, 적수)은 ‘불평’, ‘중상’, ‘신문자’, ‘고발하는 자’, ‘유혹자’와 ‘적수’를 뜻한다. 이 말은 ‘분리하다’에서 파생된 것 같다. 악마는 의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 2.3. 빵의 유혹(4,3-4)

만일 예수님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면 하느님의 보호를 외면하고 하느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악용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존해야 하는 아들의 신분을 부인하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분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악마는 예수님이 굶주림가운데서 그렇게 하느님을 저버리시도록 유혹했다. 이 유혹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을 희생해야 하시는데 이들의 사명에 반대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빵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당신 백성을 보호하고 부양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을 이기시어 당신이 메시아로서 권능을 남용하지 않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 2.4. 악마 숭배를 부추기는 유혹(4,5~8)

루카 4,6 : 이 유혹은 악마가 가진 모든 권세와 그가 보여준 모든 왕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닌 악마에게서 받으라는 것이다. 악마가 예수님께 줄 수 있다고 하는 권세와 영광은 정치권력과 찬란히 빛나는 왕국의 부귀영화를 뜻한다. 또 사탄은 자기에게 양도된 모든 권세와 왕국들의 영광을 예수께 주겠다고 유혹했는데(루카 4,6), 이는 그가 그것들을 하느님께 받았음을 암시한다.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루카 4,6)라는 악마의 주장은 고대 아람어 권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다니엘 서(4,14,29)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이에게 당신의 권위와 사람들의 왕국을 주신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러한 다니엘서의 용법을 참조한 것 같다. 악마는 자기가 하느님께 모든 권세와 왕국들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이들에게 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께 세상 종말의 참된 영광, 당신의 영광을 주실 분은 악마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루카 4,7 :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의 차지가 될 것이오.”

악마를 섬기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임금이라는 신분을 악마에게서 받음으로써 당신의 하느님 아들 신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악마에게서 예속되어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포기하고 그분을 저버

리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루카 4:8 :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가나안족의 우상숭배에 이끌리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6:10~15). 그 이유는 하느님만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루카 16:13). 정치권력은 악마의 마수에 쥐어져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 종속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왕국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아버지께 받은 예수(루카 12:31)께서는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신다. 하느님은 당신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천상천하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심판주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사도 10:42; 17:31).

#### 2.5. 하느님의 보호를 시험하기 위한 유혹(4:9~12)

악마가 성전 꼭대기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발을 다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두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자기의 유혹을 뒷받침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4:10~11) 이 말씀은 **시편 9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인용**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 모든 위험에서, 돌길 위의 장애물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위의 시편은 의인이 무조건 아무런 불행도 겪지 않고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 구원이 오로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의인은 하느님의 보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악마는 예수께서 절벽으로 몸을 던져 하느님의 보호를 입증하라고 유혹했다.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악마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기 때문에 유혹의 근처에는 속임수가 깔려 있다(루카 9:39; 8:33).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루카 4:12).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느님의 기적적 보호에 의지하라는 유혹을 거절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떨어져서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다.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리라는 의심이 전제된 것으로서 불신과 통한다.

#### 2.6. 악마가 떠나감(4:13)

악마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실 때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가로막기 위해 다시 나타난다.(루카22:3.31.53) 그러나 예수께서 돌리브 산에서 다시 시련을 겪으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강하게 할 것이다(루카 2,43~44). 이렇게 위의 유혹에 대한 서술은 예수님의 고난사를 지향한다. 예수님과 악마의 갈등은 지속적인 것으로서(루카 22,28), 그분의 활동기간 내내 계속되지만, 예수님은 악마를 쫓아내신다(4,33~37; 9,38~42; 10,17~19; 11,14~22; 13,11~17).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유혹을 이기고 하느님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행할 자격을 받으셨다.